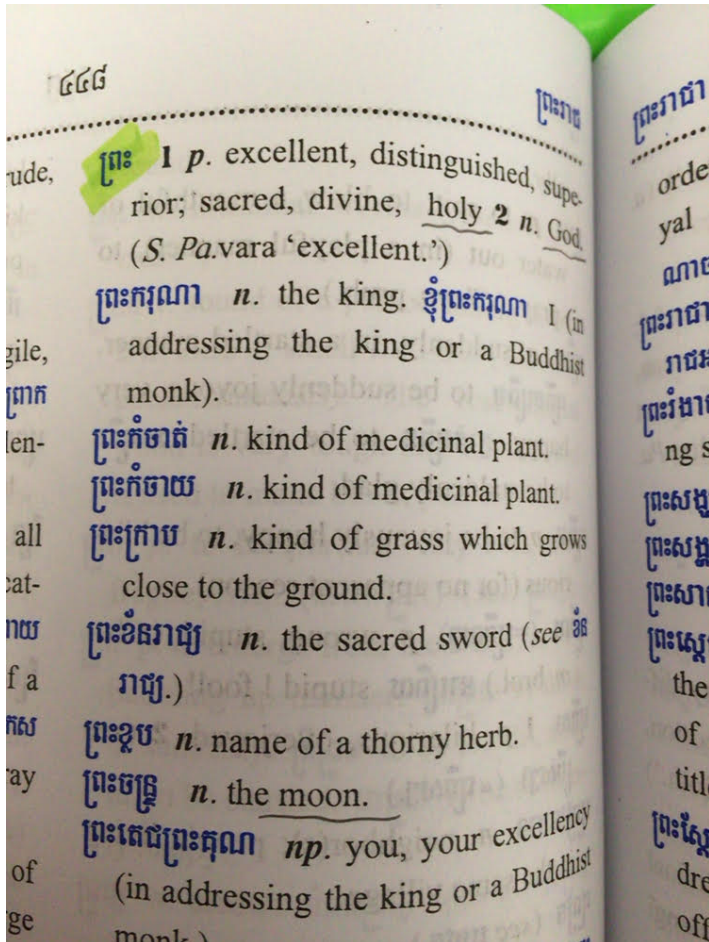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문안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이상기온현상(?)으로 예년보다 이상하리만큼 시원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덥네요. 이 동네는 신기하게 해가 저도 기온이 안 떨어집니다. 집 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도 잠들 무렵 방안 온도가 섭씨 33 도(91 F) 라고 뜬니다. 몸에 물 묻히고, 선풍기 틀어 놓고 잠을 청해 봅니다. (에어컨도 있고, 애들 자는 방은 튼니다 ^^) 그러고 보니 이 곳은 사시사철, 아니 일년 내내 노숙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애들 학교 가는 길 옆에는 그래서 판자집도 있고, 해먹도 여럿 걸려 있습니다. 모기만 잘 피하면 됩니다. 하하

크메르어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만나는 대부분의 특특(앞은 오토바이, 뒤는 리어카. 이 동네 택시) 기사들은 안타깝게도 글을 읽지 못합니다. 자기네 글자인데 못 읽습니다. 까막눈이죠. 어디 가자고 지도를 보여주면 지도에 쓰인 길 이름을 못 읽어요. 이 사람들이 겪은 비극적인 현대사, 킬링필드 때문인가 생각됩니다. 성경 한권 쥐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칭하는 크메르어는 '하나님, 신'이라는 명사 외에 '거룩하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데, 그 단어가 접두사로 다른 단어 앞에 붙어서 그냥 통용됩니다. 여기는 왕정국가라서 왕이 있는데, 왕 앞에도 그 단어가 붙고, 달 앞에도 붙고, 해 앞에도 붙습니다. 심지어는 불교의 유명한 고승 쯤 되면 그 사람 앞에도 붙여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경외함 때문에 발음 조차하지 않고 '아도나이' 라고 부르는 것에 비하면 완전 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다른 단어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 능력 밖이네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이것까지 참아주시는 게 그저 감읍할 따름입니다.

깜빡잠 고아원에 가족이 함께 다녀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고난주간이 캄보디아의 구정 설 연휴였습니다. 그게 음력도 아닌게 좌우지간 연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이모 삼촌들이 대부분 데리고 가서 남아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네요. 제 옆에 있는 뽀냐(사진)는 들어올 때 고아원 막내였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하준이랑 동갑이네요. 망고 나무에 올라가서 망고를 잘 따니다. 제 뒤에 있는 금촌은 이제 다 커서 자기가 툭툭을 몰고 동생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크메르어가 좀 더 편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애들이랑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더군요. (-.-) 사진을 찍던 날도 서너명이 친척들 집에 다녀온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어떤 삼촌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운전하는 삼촌 바로 뒤로 막내 타고, 그 뒤에 둘째 타고, 맨 뒤에 간신히 엉덩이 살짝 걸치고 두시간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는 하준이 만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뜨아... 저거 졸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야?...) 제 눈에 걱정스러운, 고생과 위험으로 비춰지는 풍경은 이 곳 캄보디아 아이들의 평범한 생활이네요. 사고가 안 나는게 이상하리만한 일상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모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프놈펜으로 돌아오는 날, 하준, 민준, 하임이가 여기 언제 다시 오냐고 즐거이 물어봐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면 부모된 아내와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을텐데 말이죠. 김영수 선교사님이 쥐어 주신 김치와 망고를 받아 들고 와서 정지웅 선교사님 가정과 나눴습니다. 우리 안의 나눔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성실 선교사 (하준/민준/하임) 드림